

■ 연산교회 사명선언문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고(신6:7), 이것이 곧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길이었다. 다음세대교회가 무너지고 있다고 입을 모으는 이 시대에 다시 한 번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길은 부모가 자녀에게, 장년이 청년과 다음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신앙적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임을 알고 이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온세대예배와 가정예배에 힘을 쏟는다.

■ 연산교회 3대 비전

생활 선교사, 주님의 숲, 빛과 소금

교회3대 Vision

생활선교사
전도와 선교의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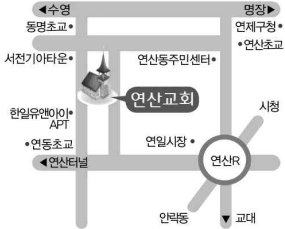
나와 삶의 주위에서 시작하여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하는
복음공동체 (2013)

주님의 숲
다음세대의 비전

태어날 때 성령께서
공의 땅에 씨앗이 뿌려지고
저녁에 주님의 숲을 이루는
야생공동체 (2015)

빛과 소금
지역사회를 위한 비전

성전의 불이 흘러 넘쳐 주변에
광명을 주기에 지역사회의
진한 나눔의 흐름을 이루는
생명공동체 (2017)

예배안내		오시는 길																																	
<table><tr><th colspan="2">주일예배</th><th colspan="2">주중모임</th></tr><tr><td>오전 예배</td><td>오전11시</td><td>새벽기도회</td><td>오전5시30분</td></tr><tr><td>오후 예배</td><td>오후 2시30분</td><td>수요기도회</td><td>저녁 7시</td></tr><tr><td>청년부모미</td><td>오후 1시30분</td><td></td><td></td></tr><tr><td>꿈땅</td><td>오전11시 오후 1시</td><td>전 도 대</td><td>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td></tr><tr><td>꿈나무</td><td>오전11시 오후 1시30분</td><td>중보기도</td><td>정해진 시간</td></tr><tr><td colspan="2">온세대 예배</td><td colspan="2">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td></tr><tr><td colspan="2">온가족새벽기도회</td><td colspan="2">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td></tr></table>		주일예배		주중모임		오전 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기도회	저녁 7시	청년부모미	오후 1시30분			꿈땅	오전11시 오후 1시	전 도 대	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	꿈나무	오전11시 오후 1시30분	중보기도	정해진 시간	온세대 예배		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		온가족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		 •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 92 • 051)862-1172 • www.yeonsanch.co.kr • 유튜브 : ‘연산교회’ 검색	
주일예배		주중모임																																	
오전 예배	오전11시	새벽기도회	오전5시30분																																
오후 예배	오후 2시30분	수요기도회	저녁 7시																																
청년부모미	오후 1시30분																																		
꿈땅	오전11시 오후 1시	전 도 대	화 오전10시 목 오후 3시																																
꿈나무	오전11시 오후 1시30분	중보기도	정해진 시간																																
온세대 예배		매월 넷째 주일(오전예배)																																	
온가족새벽기도회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오전6시)																																	

섬기는 분들					
교역자		장로		예배섬김	
위 임 목 사	김지원	시 무 장 로	양천식 한상무 이민주	지 휘 자	박보희
부 목 사	김동일		이영선 김인모 이종선		최희숙
	유명희		신승준	오 르 간	서희경
전 도 사	박새힘	은 퇴 장 로	권태환 이재홍 임근무	피 아 노	권송이
협동전도사	정성광		김재영 정찬일 조미숙		김해든
			황성국		

■ 예배 및 모임 ■

1. 온세대예배 오전예배. 글로리아를

• 오늘의 암송구절
(마16: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2. 장년부 교회학교 오후1시30분. 글로리아를

3. 목장 모임의 날 정한 시간 및 장소

4. 다음세대 교사 위로회 오후 5시

■ 교회소식 ■

1. 연산 친교회 8/30(주일) 점심식사 후

• 기존 친교회 : 탁구 친교회(이선영 권사), 산책 친교회(최희숙 권사)
은혜의 발걸음(김미숙 권사), 영화감상 친교회(김태형 집사)

• 새롭게 등록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친교회는 사무실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2. 온가족새벽기도회 8/29(토) 오전6시. 글로리아를

• 기도 : 윤옥자 권사

3. “행복한 성도, 즐거운 교회 생활” 기질 상담 세미나

• 주제 : 타고난 기질에 인간관계의 날개를 달다.

• 기간 : 9/6(주일)~11/1(주일) 매주일 오후4시(총8주)

• 강사 : 강영미 교수외 1명 • 수강료 : 10만원

•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4. 매일 성경 읽기 모임(8기) 8/30(주일) 오전9시20분. 소그룹실2(5층)

• 기간 : 9/1(화)~27/2/28(주일). 1독 이상 목표

• 문의 : 이영선 장로 • 신청서는 로비(5층)에 있습니다.

5. ‘어 성경이 읽어지네’ 신약 성경반 모집

• 개강 : 9/3(목) 오후7시30분. 12주 과정

• 교재 : 성경방 위크북 • 문의 및 신청 : 김동일 목사

• 신청서는 로비(5층)에 있습니다.

6. 빛소 장학금 신청 신청서는 로비(5층)에 있습니다.

7. 임명 김희숙 권사(주방부원)

8. 떡 제공 유명희 목사(김옥 집사) 부친 장례 잘 마침에 감사

9. 주방봉사 신승준 이영란 김태형 서희경

10. 식당봉사 정숙자 황성환 오시윤 이주형

11. 청소봉사 4교구(8/29(토) 오전10시. 글로리아를)

■ 교우 동정 ■

1. 장례 유명희 목사(김옥 집사) 부친 별세 8/16(주일)

■ 교역자 동정 ■

1. 휴가 김동일 목사 8/17(월)~8/24(월)
박새힘 전도사 8/24(월)~8/31(월)

교회 금주 공동기도제목

모든 공예배시마다 함께 기도합니다.

• 교 회 - 하반기 모든 사역에 기름부으심이 넘치도록

• 나 라 - 대통령, 부산시장, 연제 구청장을 위하여(공익을 위한 행정을 펼치도록)

• 성 도 - 바른 신앙, 아름다운 고백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제58권 34호

2026. 8. 23



대한예수교

장 로 회

YeonSan Presbyterian Church

연산교회

위임목사 김지원

교회창립 1969년 4월 27일

우리의 사명 신앙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들

표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롬1:17)

주일예배		오전 11시 김지원 목사
* 예배로 부름	요4:24	인 도 자
* 입 례 송		성 가 대
* 기 원		인 도 자
* 경 배 와 찬 양	89장	다 갈 이
* 참회의 기도		다 갈 이
* 사죄의 선언	사54:9b~10	인 도 자
* 신 앙 고 백	사도신경	다 갈 이
성 시 교 독	15번	다 갈 이
찬 송	458장	다 갈 이
공 동 기 도		다 갈 이
기 도		최은소 어린이
찬 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할렐루야성가대
성도의 교제		인 도 자
성 경 봉 독	마16:13~20(신p27)	박지민 어린이
말 씀 선 포	『 너희의 신앙 고백은 무엇이나? 』	김지원 목사
* 찬 송 및 봉 헌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다 갈 이
* 결 단 의 기 도		다 갈 이
* 봉 헌 기 도		김지원 목사
* 축 도		김지원 목사
* 파송의 찬양	함께 지어져 가네	다 갈 이
* 표시는 일어섭니다. / 파송의 찬양 1절을 부르신 이후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됩니다.		

다음주 담당자

다음 주 기도		봉 사	
주일예배	이종선 장로	봉헌	김찬희 집사
오후예배	친교의 날	주방봉사	황현덕 박민숙 서상일 김주하
수요기도회	이영란 권사	식당봉사	이영란 김태형 오시윤 이주형

매월 4주는
장년부 교회학교
&
목장 모임의 날입니다.

•경배와찬양 | 다같이

•기 도 | 정숙자 권사

•성경봉독 | 눅3:7~14(신91p)

•설 교 | 김동일 목사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충보기도회 | 다같이

•축 도 | 김동일 목사

- 시편 -
김지원 목사

< 최현미 선교사를 위한 기도 >

-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동역 교회들과 은혜롭고 격려가 되는 만남 되도록
- 사역지내 공동체가 강건히 세워지기를
- 무릎 통증 등 연약한 육체를 강건케 해 주시길

• 8/23(주일)	온세대예배, 목장모임 장년부교회학교	• 국내교회 : 해운중앙교회, 물면동산교회 능력과평강교회
• 8/29(토)	온가족새벽기도회	• 선교단체협력 : CP, WEC, TMC 봉뽀미니스트리
• 8/30(주일)	친교의날(3)	• 해외선교 이준기, 이은실(파송-캄보디아) 양 파블루스 선교사(후원-T국) 이상주 선교사(후원-필리핀) 아들람 하우스(선교사 쉼터)

매4:1~12

5.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우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6.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9.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11.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사도신경

사도신경으로 목장모임을 시작합니다.

찬 송

나는 일어섭니다, 찬송가 430장, 436장 중 택1

설교말씀

“저 마다의 길”

장례의 자리에 서보면 “저마다의 수고로운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을 보면 숙연해 지기도 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사람들이 알아주던 몰라주던 저마다의 길을 열심히 걸어왔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 길을 알고 계십니다. (시139:8, 롬23:10)

오늘 그 수고로운 “그만의 길”을 걸었던 사람에게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세례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 나이 많아 얻은 아들이나. 예수님보다 세례요한이 6개월 먼저 났으니, 동갑 혹은 한 살 많은 친척 형님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말라기 이후, 하나님의 계시도 없던 암흑기 400년에 시간이 흐른 후, 신약의 서막을 연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세례요한은 금욕주의자였으나, 유대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인물입니다. 또한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의 위치, 자신의 길을 분명하게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인물이 세례요한이었는데, 오늘 본문은 그의 죽음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의 죽음과 관련하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허무한 죽음인 듯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결코 잊혀진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기적 사이에 세례요한의 죽음을 배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은 항상 영광과 성공만이 아니라, 때로는 의미 없는 삶처럼 보이고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의 지리한 일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지고, 그러한 저마다의 길을 하나님께서는 관심 있게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해 주고자 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신앙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에 “고지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 위에서 아래 사람들을 책임지는 지도자”의 모델이 이미 깊숙이 만들어져 있었고, 지금도 그럴 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서지 못하면 실패자, 루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알아주고, 칭찬해 주는 일 해야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그곳에 우리 주님은 관심 가지고 계시고 우리 주님의 찬지, 천국을 그곳에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 포도원 일꾼에 비유의 의미는, “주인은 삶의 모습과 상관 없이 같은 관심, 같은 사랑, 같은 은혜를 준비했다.”입니다. 문제는 자신의 길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일꾼, 또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것들만 살아남고 의미 없는 것들은 도태된다”는 말입니다. 정말 그럴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 업적, 배움, 사회적 지위로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잠22:2, 롬2:11) 하나님께서는 저마다의 길을 걸어오신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주목받고, 박수받는 삶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저마다의 길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도 고된 삶의 연속이겠지만,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기억하시면서 저마다의 길을 복되게 걸어가는 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 설교 말씀을 떠올리며 아래 질문에 대해 보세요.

1. 세례요한의 죽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은 무엇인가요(잠22:2,롬2:11)?

☞ 설교 말씀을 기준으로 삶에 적용해야 할 내용을 나누세요!

1.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들로 인해 힘들었던 적이 있나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저마다의 길’을 걷는 이들에게 건네고 싶은 축복과 위로의 말을 나누어 보세요.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김선용 김용자 김은호 김재영 박보희 박선희 박희자 오미희
윤경민 윤옥자 이선영 이성혁 이인승 이종선 표영숙 황성국
황현덕 무영

감사헌금

강신범 권대환 권현정 김미숙 김성분 김찬희 나영희 노혜숙
박 준 박희자 반명호 윤병희 이보영 이성혁 이영란 이영선
이재흥 이종선 이지윤 이호진 정창식 정현진 조정자 진영림
최진숙 최현우 한상무 황성국 황신숙 황예안 황일석 황점옥

선교헌금

김성섭 김찬희 박성애 박은희 박희자 서옥선 오미희 이종선
진영림 표영숙

전도헌금

강신범 김찬희 박성애 서옥선 오미희 표영숙

장학헌금

김찬희 박성애 박은희 오미희 이종선 진영림 최진숙

구제헌금

김재영 김찬희 박선희 오미희

건축헌금

김성섭 김찬희 박선희 박희자 서옥선 오미희 이종선 진영림
표영숙

목적헌금

김옥임 김대순 나영희 오미희 조미숙 황성국(필리핀)

주일헌금

장년부

온라인 헌금계좌

헌금하시는 목적에 맞는 계좌에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헌금(십일조, 감사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1-02 연산교회

• 특별헌금(전도, 선교, 구제, 장학) - 부산은행 113-2012-0654-01 연산교회

• 건축헌금 - 부산은행 113-2012-0657-00 연산교회